

ARHI의 전통염색기술 활성화 노력

디비야 조티 보라

ARHI

서론

문화생활, 생산방식과 생태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적 역학은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새로워진 생산방식은 종종 사람들의 문화적 관습들을 지역 생태계에 의해 제한되도록 만들었다.

다양한 토착 인구집단이 거주하는 인도 북동부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문화가 이곳의 우아한 삶의 경험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오늘날 인도 북동부의 인구는 생활방식, 문화 활동,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인구집단의 문화적 변용, 동화와 융합을 의미하는 생리적 특징의 측면에서, 많은 다양성을 보여준다. 인도 북동부는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와 문화적 요소들이 섞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브라마푸트라 계곡의 평원에서 카르비, 디마 하사오나가 산을 지나 디방 계곡까지 이르는 인도 북동부의 전체 문화적 생명선에는 수많은 문화적 표현들의 등고선들이 퍼져있다.

지역 무형유산

종족적 이질성이 북동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통 민속문화의 흐름은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활의 기반을 형성한다. 이것은 단순히 민속과 무형문화유산(ICH)이 인간의 역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던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역은 많은 무형유산의 보고이고, 이들은 이 지역의 인종적 조화를 형성하는 데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다양한 부족들의 자산이다. 모든 부족의 민속 전통은 매우 강력하고 문화적 특성과 관습의 존재로 풍부해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풍부한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구전 유산이다.

공동체 정신은 구성원들이 직접 짠 전통의상에 반영된다. 전통적인 공동체의 의약, 전통 건

축과 풍부한 예술 및 공예품은 이들의 실질적인 문화생활의 필수적 요소들이다. 전통 축제는 이들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무형유산의 쇠퇴

그러나 도시 생활에서 만연한 기계화와 종교적 통합의 패권 아래,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우려할만한 숫자로 매일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오래된 과정은 자신의 공동체의 풍부한 문화적 기풍과 관습에 완전히 무지한 몇몇 세대가 만들어진 결과 심각하게 중단되었다.

쇠퇴 요인

극도의 가난과, 많은 다른 경제적 요소들은 공동체들이 과거와 비교하여 자신들의 문화생활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게다가, 이들의 문화생활을 육성하기 위한 견고한 지원 시스템이 없다. 무형유산 쇠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지역 전체에서 토착 언어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소규모의 주변부 공동체만 언어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주류 공동체의 많은 언어조차 유네스코의 멸종위기 언어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언어는 공동체의 문화적 기풍과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언어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무형유산이라는 보물이 소실되는 것을 견뎌야 한다.

무형유산 보호

세월에 따라 진화한 토착 관습과 유산은 사라지고 있는 세계의 무형유산에서 명백히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종합적인 문서화 방법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부족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통합적인 접근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젊은 세대에 무형유산 학습의 기본 도구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기 위해 공동체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목표로 삼을 부분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 지속적인 대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ARHI의 개입

위에서 언급된 요인들은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유산 연행의 활성화에 관련된 토착문화 기구들의 등장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기구 중 하나가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 기반을 둔 ARHI(ARHI는 아삼어로 모범(example)을 의미한다)이다.

2008년 설립된 ARHI는 토착 부족에 속한 개인들과 원주민의 문화교육권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의 협업 단체이다. 이것은 모든 토착 공동체가 자신들이 직면한 도전과 문제를 논의하고 고찰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찾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플랫폼이다. 또한, 모든 크고 작은 토착 공동체들로 구성된 풀뿌리 조직이다.

비전과 미션

토착민이 이끄는 조직으로서, 최우선 목표는 토착민과 이들의 문화의 전반적인 발전이다. 문화 정체성의 위기, 토착 언어와 문헌의 활성화, 그 외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이 조직의 핵심 운영 분야들이다. ARHI는 구체적으로 토착민의 무형유산 보호를 다루는 인도 북동부 민속문화 연구센터(FCRC)의 부속기관이다.

FCRC는 인도 북동부 지역 출신의 직원들이 이 처녀지에 정착한 다양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의 문서화되지 않고 기록으로 보관되지 않은 문화를 보존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FCRC가 수행한 모든 조사에서 생활방식과 노래, 의식 등 때 묻지 않은 문화적 상징들을 목격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었다.

따라서 ARHI는 영상 및 음성 기록을 통해 그토록 다양한 문화에 대한 증거 기록이 되어야만 한다. 이 외에도, FCRC에 의해 종족 문화, 언어, 문헌에 대해 철저히 조사된 출판이 이루어졌다. FCRC의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교 및 통합된 문화적 의식을 심어주고 사실상 범세계적 사회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설립”하는 것이다 (인도 북동부 ARHI, 서문 “d”).

FCRC는 인도 북동부의 부족들의 다양한 공동체가 보유한 많은 노래와 찬가들을 음성 기록으로 남겼다.

ARHI의 주요 성과

성과 개요

1. 워크숍 개최

ARHI는 토착문화 또는 특정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신중한 조사와 철저한 사실 수집 후, 워크숍에서는 글과 이미지를 통해 지역 문화의 독특함을 전달하기 위해 예술적이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타이 파케 부족, 카르비와 티와 부족의 전통 노래에 관해 주목할 만한 워크숍이 열렸다.

2. 조사와 온라인 자료 센터 설립

ARHI는 학술조사와 현장 조사가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토착 예술과 문화의 촉진과 지속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ARHI는 대중, 예술가, 문화노동자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지역 공동체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사의 성과를 가상의 전시로 전환하여 웹페이지에 업로드했다. 온라인 자료 센터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교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육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토착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3. 세미나와 미팅 열기

ARHI는 지역 문화에 대한 학술적 주제들을 발표하도록 학자와 연구자들을 주기적으로 초청하고, 공동체의 이벤트로서 문화관광을 제시하여, 대중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뿌리로 돌아가서 공동체 문화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 문화에 대한 경험, 지식, 이해와 감사를 얻을 수 있고 지역 문화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을 고취할 수 있다.

4. 교육을 통해 토착문화와 예술 촉진

대중과 젊은이들이 지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동시에 지역 문화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ARHI는 공동체 문화 관련 텍스트와 그래픽을 제공하고, 문화 세미나와 공동체 워크숍을 운영하며, 다양한 기관의 일반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 것을 보조하고, 일련의 교육자료를 제작하며, 지역 예술 및 문화와 청소년 교육의 통합을 발전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5. 책 출판

ARHI는 인도 동북부의 다양한 부족에 대한 여러 조사와 기록물을 출간했다. 타이 파케, 싱포, 티와, 카르비, 탕샤, 타이캄티 부족들, 북동부 부족의 전통 의학, 파트카이 산맥의 민간설화 모음에 관한 책들이 출판되었다.

6. 토착 언어 부활 프로그램

ARHI는 유네스코 소멸 위기 목록에 등재된 토착 언어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여러 언어 부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프로그램은 티와 언어 부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이전 사업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ARHI는 아삼 서부 카르비 양롱 지구에 사는 부족들의 전통 염색체계의 활성화에 주로 참여했다. 선택된 부족들은 카르비와 티와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카르비 부족의 염색체계와 전통 시스템과 관련된 무형유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의 이름은 “잃어버린 색깔을 찾아서 : 카르비 부족의 천연염색 전통 활성화”였다.

카르비 부족에 대하여

인도 정부 헌법령에서 미키르족(Mikir)으로 언급된 카르비스(카르비)족은 인도 북동부, 구체적으로 아삼의 산간 지역에 사는 주요 토착민 부족 중 하나이다. 위대한 예술가-학자인 비쉬누 프라사드 라바(Bishnu Prasad Rabha)는 이들을 아삼의 콜럼버스라고 불렀다. 이들은 스스로를 카르비, 때로는 알렝(Arleng(카르비어로 문자 그대로 “사람”을 의미))이라고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

카르비스족은 아삼 카르비 양롱 지구의 주요 토착 부족공동체이다. 이 행정 지구는 인도 헌법 제6 부칙의 조항에 따라 지정되었고 1951년 11월 17일 이후 자신들만의 자치구를 가지고 있다.

카르비스는 언어적으로 티베트-버마어파에 속한다. 티베트-버마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원래 고향은 중국 서부 양쯔강과 황하강 부근이고, 이들은 브라마푸트라, 친드윈과 이라와디강을 따라 내려가서 인도와 미얀마로 들어갔다. (출처 : 위키피디아)

카르비족의 직물 전통 살펴보기

직조기와 직물은 카르비스족의 또 다른 주요 수공업 산업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특징을 가진 민속 예술로서의 베틀 짜기는 카르비스족의 문화와 전통의 필수요소를 형성한다. 전통적으로 손으로 짠 제품들은 그 아름다움과 단순성과 함께 이들의 영화로운 유산, 예술성, 숨씨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제품들은 토착 직조공들의 기술과 창조성을 보여준다.

모든 카르비 여성들은 페-테랑(pe-therang)으로 알려진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직조기가 집 밖 담장이 쳐진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들은 누에고치를 기르고 실을 잣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카르비 여성들은 여전히 실을 잣기 위해 수동 직조기, ‘타키리(takiri)’를 사용한다.

직조공들은 이러한 전통 베틀을 사용해 오늘날까지 자연, 새, 물고기, 꽃,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하고 복잡한 디자인을 만든다. 카르비 전통 의복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옷의 디자인과 색상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통 염색체계

전통 염색체계는 이들의 직물 전통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염색은 수 세기에 걸쳐 육성되고 애용된 창조적이고 영리적인 예술이다. 직물에 수많은 색의 사용되는 것은 카르비스 직물 전통의 독특한 특성이다. 부족은 실을 염색하기 위해 식물에서 천연색을 추출하는 아주 풍부한 과학적 지식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친환경적이다.

염색 과정은 식물 찾기에서 다양한 염색 준비까지 여러 과정이 포함된 포괄적인 과정이다. 이들은 약초/식물, 나뭇가지, 또는 동물성 제품과 같이 다양한 천연자원에서 염료를 준비한다. 전통적으로 카르비스족은 세 가지 색, 즉 흰색, 인디고 블랙(어두운 검푸른색), 빨간색을 사용한다.

실 염색은 최근까지 카르비 직조공들, 즉 토착 염색 기술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염색 기술은 사라지기 직전이다. 공장에서 만든 염색사를 시장에서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날 직조공들은 염료를 준비하는 귀찮음을 건너뛰려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마을들이 이러한 물질들을 발견하고 토착 염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아는 마지막 세대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시급한 보존 필요성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지식 체계 중 하나는 카르비 식물 전통의 필수요소인 천연 염색 체계이다. 불행히도 기계로 만든 값싼 천과 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염색기술전문가는 오직 몇 명의 원로 직조공들만 남아있다. 신세대 직조공들은 염색 전통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정부 기관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실질적인 대응도 없었다.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

카르비족의 전통의상은 이들의 정체성, 생활 패턴, 사회적 및 문화적 신념을 보여준다. 이들은 풍부한 문화 전통의 심미적 표현이다. 전체 염색 과정은 대부분 구전 형태인 의례, 찬가 또는 발라드와 같은 수많은 문화적 표현들과 엮여 있다. 천연염색 과정은 다양한 서정시와 관련 있다. 염색의 전 과정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이와 관련된 무형유산도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있다.

활성화 사업 구상

사업은 1. 모집과 교육 2. 기록 3. 워크숍 4. 평가, 4단계로 시행될 것이다.

모집과 교육의 초기 단계는 소멸된 염색 전통을 보존하도록 공동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무형유산의 촬영과 함께 염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식물의 선택과 이들이 가진 염료의 특성, 색 추출 과정, 실 염색, 노래 녹음 등이 시청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모든 기록물은 전체 과정뿐만 아니라 식물의 사진도 포함하여 소책자로 발행되었다. 지식을 보유한 원로 직조공들이 젊은 직조공들에게 염색 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일련의 워크숍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최종 단계에서 공동체 대표는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것이다.

카르비 부족의 무형유산 개관

카르비족의 민요는 공동체의 축적된 상상과 미적 감각의 결과이다. 민요는 자연환경에 맞게 조정된 민간설화에서 가져온 단어와 이미지들을 활용해 지역적 특징이 담긴 카르비족의 민중 생활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래들은 관객들을 지역 세계, 지역의 장소, 특징, 강, 새, 동물, 산, 남신과 여신들, 관계와 알려진 특징들, 지역 산물, 지역 의상, 음식, 습관과 관습 등 실제로 지역

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심미적 환경으로 데려간다.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민요에서 공통적인 것은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 관계의 동일성, 전통과 문화에 대한 태도, 전통적 가치에 대한 심리와 유지이다.

직물 전통과 관련된 민요

1) 창조의 노래

창조의 노래에 서술된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세상이 형성되었고, 사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창조 이야기에 담긴 관계들은 우주의 본성과 어떻게 문화들이 그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르비 민속사회에서 창조의 노래는 ‘케플랑(Keplang)’ 또는 ‘케플란트(Keplant)’로 알려져 있다. 카르비족의 기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보완하고 보충하며, 카르비의 세계관은 이러한 기원 이야기를 둘러싸고 구성되었다.

2) 카르비 케플랑

카르비족의 기원을 서술하는 케플랑은 민족의 기원을 ‘지구의 배꼽(Longle achete)’에서 ‘흰 산(long-le kelokabui)과 버마인의 땅(Barmipiakengri/Barmipoakengri)을 지나 현재의 거주지까지 추적한다. 신화에 의하면, 전설의 새 플라크부트피(Plakvutpi)가 수천 개의 알을 낳았고 저마다의 알에서 각각 공동체가 태어났으며 카르비스족 공동체도 태어났다.

3) 케플랑 또는 창조의 노래

창조주에서 카르비족의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자연의 산물 기원까지 다루는 카르비족 창조의 노래 범위는 카르비족의 세계관을 구성한다. 험푸케플랑(‘Hemphukeplang’)은 사람들에게 특정 규칙, 법규, 이상을 갖고 평화롭게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신체, 정신, 영혼의 정화와 평생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 고결함, 겸손, 고약한 성미를 버리고 온화한 성정을 가질 것, 자존, 건강한 경쟁심, 순종, 정당한 거래와 자신감 등 특정 가치들을 심어주려 한다. 봉 케팡(Bong Kepang), 탐 케팡(Thap Kepang), 속 케팡(Sok Kepang), 펠로 케팡(Phelo Kepang) 등의 노래들은 기여에 대한 감사, 조상과 전통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가치들을 포함한다.

4) 펠로 케팡, 목화의 기원에 관한 노래

펠로 케팡은 목화의 기원과 사회에서의 사용에 대해 묘사하는 민요이다. 펠로 케팡은 목화의 기원과 카르비 민속사회에서 직조의 시작을 구연한다. 펠로, 즉 목화의 기원은 직조의 기원과 무명실로 짠 직물의 생산과 관련 있다.

펠로 케팡이 구연하는 목화의 기원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이야기에 의하면, 한 고아 소년이 아케 푸(전통 낚시 축제)에 낚시를 하러 갔다. 이 공동체의 낚시 축제에서 누구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이 소년은 매우 큰 특별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었다. 그가 요리를 위해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그 배 속에는 많은 씨앗이 들어있었다. 그는 씨앗의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씨앗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험푸(신)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 각 씨앗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며 땅에 심으라고 알려주었다. 목화 씨앗이 그중의 하나였다. 흥미롭게도 목화는 그전에는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소년은 신이 알려준 대로 목화씨를 심었다. 시간이 지나 목화 나무가 자라서 목화가 만개했다. 다시 그는 신에게 목화꽃으로 무엇을 할지 물었다. 신은 소년에게 목화에서 실을 추출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실로 천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코로나 발발과 그 영향

인도가 코로나19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북동부 지역도 매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 외에도, 지역의 작은 마을과 동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공동체 수준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번 위기는 항상 보건 체계의 수용자 입장인 토착민들에게도 좀 더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다.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유산들은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발발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영향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하고 무형유산의 실천과 교류를 촉진하는 모든 핵심 기관들을 무기한 폐쇄하는 전국적인 봉쇄가 시행되면서, 모든 형태의 무형유산이 이번 위기로 인해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다양한 민간 또는 정부 기구의 보존 노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다. 가장 심각한 타격은 민요 가수, 공예가, 직조공, 민속 음악가 등 지난 6개월간 수입이 전혀 없이 생계를 제한당한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받았다. 이러한 무형유산 보유자 중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본업을 버리고 변변찮은 일을 해야 했으며 이것은 무형유산에 또 다른 중대한 위협이다.

도전 vs 기회

의심의 여지 없이 코로나19 사태는 무형유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동체와 조직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가져왔다. 이것은 무형유산 보유자들에게도 생존의 측면에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왔다. 토착 공동체는 특히 여성의 생존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경제적 영향

토착 공동체들은 정부가 도입한 봉쇄 때문에 생계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다수의 토착민은 일용노동자들이고 이들은 이동 제한 때문에 하루 수익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국가 경제의 둔화로 인해, 작은 마을에서 변변찮은 일에 종사하는 많은 토착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 이미 수천 명의 젊은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도시를 떠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토착 공동체들에 큰 타격을 주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형유산 보유자들을 위한 거의 모든 기회의 장이 닫혔고 무형유산의 대중공연도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삼과 같은 주에서 무형유산의 상황에 심각한 도전뿐만 아니라 기회도 가져왔다.

도전은 아주 많고 다양하지만, 무형유산을 위한 기회는 드물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도 무형유산을 위한 몇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는 주류 토착 공동체들에게 나머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통 의학에서 비롯된 면역 발달이라는 맥락에서 일부 가치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적절해졌다. 토착 공동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 의학을 실천해왔고 이것은 많은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대한 면역을 공동체에 제공한다. 흥미롭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많은 무형유산이 가치 있는 전통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 놀랍게도 팬데믹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앞으로 가져왔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이야말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조직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 활동을 수정하게 만든다. ARHI도 예외가 아니다. ARHI도 접근법, 작업 방법, 초점에 몇 가지 변화를 주었다.

1. 웹 도구와 소셜 미디어 활용

사업 활동은 코로나 프로토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점점 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저 지출과 적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도 더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ARHI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무형유산 공연을 생중계했고 집에 머무는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끌어들이었다. 구글 미트와 줌 회의의 도움으로 온라인 무형유산 훈련과 워크숍도 가능해졌다.

2. 디지털 역량 강화

온라인 플랫폼들이 공동체가 기술적으로 정통하길 요구하면서,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도구 활용의 전문가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 ARHI는 공동체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여타 전자기기 활용을 교육하게 했다.

3. 선구자로서의 토착민 청년들

우리는 토착민 청년들을 자신의 공동체가 보유한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을 이행할 선구자로서 고용했다. 이들은 이미 디지털 기술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동원하여 디지털 기술을 교육하는 일을 맡을 것이다.

4. IEC 자료 개발

무형유산 교육의 메시지를 담은 많은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IEC) 자료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왓츠앱/페이스북 메신저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다량으로 공동체들과 공유될 것이다.

5. 무형유산 보유자들을 위한 대안적 생계 수단

ARHI는 무형유산 보유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수제 마스크 제작을 의뢰함으로써 대안적인 생계 수단의 기회를 만들었다. 현재 수제 마스크는 인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수요가 높다. 전통적인 디자인과 모티브가 수제 마스크에 적용되었다.

6. 무형유산 교육과 온라인 학교 수업의 통합

봉쇄로 인해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열게 되면서, ARHI는 무형문화 교육, 특히 펠로 케플랑 노래 부르기를 일부 학교의 외부활동 수업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전후 무형유산 보호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많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앞으로 가져왔다. 펠로 케플랑(목화의 기원에 대한 민요)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지구상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한 상호작용 또는 상호의존을 이해하는 생태적 지혜에 초점을 맞춘 로 케플랑을 활성화하도록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자연물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카르비스족의 창조의 노래 특징은 생태 중심주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존 이해, 오늘날 상황에서 관련성이 더 높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같은 환경윤리이다. 노래에 담겨있는 전통 가치들은 젊은 세대가 자신의 땅과 물건들, 그리고 자신의 토착 비인간 물리적 환경의 생존과 건강한 인간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기관들의 업무에 심각한 도전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엄청난 가능성도 만들었다. 토착민이 이끄는 ARHI의 무형유산 보호책임은 다양해졌다. 새로운 일상은 전통적인 방법과 접근법을 재구성할 필요를 가져왔다. 여러 활동이 계획되었고, 이들은 현재 상황을 위해 매우 상호적이고 효과적이다. ARHI가 지역의 토착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무형유산 교육은 최초로 완전히 디지털 형식으로 학교 교육에 통합되었다. ARHI에 의해 야기된 공동체 내에서의 디지털 혁명은 무형유산 보호에 공동체를 참여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다. 특별히 언급할 점은 무형유산을 고취하기 위해 토착민 청년들을 선구자로 동원한 것이다. ARHI가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이 무형유산 영역에서 공동체들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Dharamsingh Teron, Karbi Studies, Vol.-2, Assam Book Hive, Guwahati, 2011, pp.21-22
2. Jorsing Bey, 'Hemphu Keplank', Lun Barim Aphar, Karbi Lammet Amei, Diphu, 2004, pp. 1-5.
3. Murulidhar Das, Bhaium Karbir Lokaparampara Aru Git-mat, Assam Institute of Research for Tribals and Scheduled Castes, Guwahati, 2007, pp.4-6.
4. Loksanskriti published by ARHI,2020